영토분쟁에 따른 벨리즈의 정치·경제적 영향

Influencia del Político y Economía de Belice por el Conflicto Territorial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비즈니스 연계전공

20080371 이창우

(Lee, Chang-Woo)

- 목 차 -

Abstracto

Ⅰ 들어가는 말

Ⅱ 벨리즈의 인문지리 및 역사

1. 벨리즈의 인문지리적 배경

2. 벨리즈 역사

Ⅲ 벨리즈 독립과 과테말라와의 영토분쟁

1. 벨리즈의 국경형성과 영토분쟁

2. 벨리스의 독립과 영토분쟁의 지속

3. 영토분쟁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Ⅳ 영토분쟁과 벨리즈 정치·경제

1. 독립 이후의 벨리즈 정치·경제

2. 이민과 국경지역의 경제상황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o

Belice es un país que está en Centroamérica y se independió el 21 de septiembre de 1981 desde Inglaterra; antes independiente, fue colonia de Inglaterra y se llamaba “Honduras

Británica” desde 1859 hasta 1964 y se llamaba “Belice” de 1964 a 1981.

Belice fue territorio de los Mayas antes de que España conquistara y luego fue una parte de Nueva España, pero los ingleses llegaron en Belice desde 1638 y luego México se independió el 1810 y Guatemala el 1821, pero México y Guatemala alegaron que el territorio de Belice es suyas, pero Inglaterra ignoró y después fundió Honduras Británica el 1859; el conflicto del territorio de Belice y Guatemala se empezó desde este momento.

El conflicto se fue enorme porque fue conflicto entre Inglaterra y Guatemala. Antes Independencia de Belice, Guatemala pidió el territorio de Belice pero Inglaterra rechazó y muchos países y el UN querían que Belice se independizara, pero el conflicto no resuelve bien. Había muchas colisiones militares entre Belice y Guatemala y la relación entre Guatemala e Inglaterra se cortó. Desde el 2000,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OAS) empezó arbitrar para que resolviera más fácil, pero se iba a transferir a la Corte Internacional de Justicia (CIJ) e iba a hacer referéndum el 6 de septiembre de 2013, pero se canceló.

Por el conflicto de la frontera, se reflexionó mucho sobre la sociedad de Belice. El desarrollo fue muy lento y había muchos inmigrantes desde Centroamérica.

[키워드] 벨리즈 / 과테말라 / 영토분쟁 / 영국 / 멕시코 / 미주기구
[Key Word] Belice / Guatemala / Conflicto Territorial/ Inglaterra / México / OAS

Ⅰ 들어가는 말

한 국가의 독립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던 주권을 되찾아와서 스스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국민 스스로 외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영토, 언어, 정부, 사회분위기, 국민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대한민국 헌법에서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는 것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국경은 말 그대로 두 국가 사이의 경계를 말하는데, 강, 산, 바다 등을 활

용한 자연적 국경과 문화적, 정책적, 군사적 이유로 형성된 인위적 국경이 있다[1]. 또 국경 지역은 두 국가간 관계가 상당히 반영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국가간 관계가 좋을 경우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경지대에는 시장이나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경향이 짙어지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의 휴전선,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국경처럼 두 국가 사이가 안 좋거나 분쟁 상태에 있거나 좋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민자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경우에는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력이나 군 병력을 배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파나마 – 콜롬비아 국경처럼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육로를 통한 교류가 없는 지역도 있다.

또한 국경은 양 국가간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분쟁이 없고 교류도 미미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곳도 있거나 분쟁은 없는데 교류가 많아져서 경제특구가 조성된다거나 (멕시코 (체투말 Chetumal) – 벨리즈 (산타엘레나 Santa Elena) 국경지대에 면세지대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문화가 혼합된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곳도 있고, 국경지대에서의 외적 교류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 관계가 좋으면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간 우호를 다지기도 한다. 반대로 분쟁이 일어나서 국경이 폐쇄되고 교류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바뀌는 곳도 있다.

영국령 온두라스 (British Honduras)로 불리던 벨리즈는 1981년 9월 21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립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식민지 초기에는 스페인의 부왕령이었다가 영국사람들이 도착한 이후 영국령이 된 상태로 세월이 흘러 독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후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가 곧 그 사회의 정체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벨리즈와 과테말라 사이에는 영국령 온두라스 시절부터 국경문제로 인해 분쟁을 겪어왔으며, 이 분쟁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진행형이다. 1981년 독립 이후부터 수 차례 과테말라군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고, 급기야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해결을 시도하여 어느정도 매듭을 짓는가 싶더니 2008년에는 국민투표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섰다가 무산되는 일

[1] 임상래, 177 ~ 178

이 벌어지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걸어왔다. 2014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은 벨리즈 남부지역과 사포디야 암초 (Sapodilla Cayes)인데, 과거 벨리즈 전 국토의 영유권을 과테말라가 주장하다가 과테말라가 한 발 양보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벨리즈 독립과정과 영토분쟁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벨리즈의 정치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벨리즈의 역사와 영토분쟁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Ⅱ 벨리즈의 인문지리 및 역사

1. 벨리즈의 인문지리적 배경

1.1) 지리적 환경

벨리즈는 유카탄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의 국가로, 서쪽으로는 과테말라, 남쪽으로는 온두라스, 북쪽으로는 멕시코, 동쪽으로는 카리브해와 접해있다. 동쪽 카리브해 지역은 수심이 얕고 수많은 암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벨리즈 해안을 보호한다. Belize, Cayo, Orange Walk, Corozal, Stann Creek, Toledo 등 총 6개의 도 (District)가 있으며, 이 중 벨리즈 도의 인구가 가장 많다. 영국령 온두라스였다가 1981년 9월 21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 [3]

[2] Ruíz Chan, Maximiliano: 25 ~ 26

[3] CIA.

[그림 1] 벨리즈 지도 (CIA. 2014)

[그림 2] 벨리즈 그레이트 블루홀. U.S. Geological Survey (USGS, 2006) (Wikipedia)

1.2) 인구 및 민족

2010년 기준 벨리즈 인구는 324,528명이다. 1946년 59,220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독립 직전인 1980년에는 145,353명을 기록하였고,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벨리즈 국내에 거주중인 322,453명의 인구 중 대부분은 벨리즈시티가 속한 벨리즈 도 (Belize, 69,041명, 30%)와 수도인 벨모판이 속한 카요 도 (Cayo, 54,197명, 23%)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오렌지워크 도 (Orange Walk, 40,132, 14%), 코로잘 도 (Corozal, 33,846명, 13%), 스탠 크릭 도 (Stann Creek, 25,228명, 10%), 톨레도 도 (Toledo, 24,094명, 10%) 등이 차지한다.[4]

성비 균형이 비교적 고른 국가다. 남성이 161,227명이고 여성이 161,226인데,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를 뿐 아니라 각 도시별 성비도 고르다. 또한 인구 피라미드는 2000년에는 완전한 피라미드 형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유년층 비율이 다소 줄어 변형된 피라미드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5]

인종으로는 메스티소 (Mestizo) 등 라틴 계열이 170,446명 (52.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크리올 (Creole)이 83,460명 (25.9%)로 2위를 차지한다.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마야 문명의 근거지였던 탓에 마야인 (Maya)들도 많이 사는데, 36,507명 (11.3%)를 차지한다. 그 뒤로는 가리푼다 (Garifuna), 메노나이트 (Mennonite), 백인, 아시아계 등이 차지한다.[6]

종교의 경우 영연방 소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스페인의 영향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129,456명 (40.1%)이다.[7]

1.3) 언어

벨리즈의 공식 언어는 영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어 기반의 크리올어

[4] Statistical Institute of Belize: 6 ~ 8

[5] Statistical Institute of Belize: 15 ~ 17.

[6] Statistical Institute of Belize, 20.

[7] Statistical Institute of Belize, 23pp

(Creole)와 스페인어 사용자도 많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4세 이상 인구 292,263명 중 영어 사용자는 183,903명으로 62.9%를 차지하고, 스페인어 사용자는 165,296명으로 56.6%, 크리올어 사용자는 130,467명으로 44.6%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에는 2개국어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오렌지워크 (Orange Walk), 코로잘 (Corozal)과 카요 (Cayo) 등 멕시코, 과테말라와 접해있는 중서부 지역은 스페인어 사용자가 많고, 벨리즈시티가 있는 벨리즈 등 동부지역에서는 영어 사용자가 많다.[8]

1.4) 경제 및 산업

벨리즈의 경제는 1차산업과 3차산업 위주로 발달되어있으며, 1차 산업의 경우 해산물, 감귤, 바나나, 원유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경우 관광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봉제업 등 소규모 제조업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9]

그 중 관광산업이 벨리즈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술하였듯 카리브해 지역에 산호초와 암초 등이 많이 있어 해양관광 관련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옛 수도인 벨리즈시티와 동부 각지에 위치한 섬을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블루홀 등 천혜의 관광지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사탕수수 제조업은 벨리즈가 열대기후인 탓에 식민 시대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원유수출업의 경우 비중이 낮긴 하지만 벨리즈의 주요산업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유전이 발견되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OPEC에 가입할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다.[10]

[8] Statistical Institute of Belize, 21~22pp

[9] CIA.

[10] NPR

2. 벨리즈 역사

벨리즈는 예전에는 마야인들의 땅이었다. 마야 문명은 지금의 메소아메리카 (Mesoamérica)에서 번성했던 문명으로, 현재의 멕시코 치아파스주 - 유카탄 반도 지점부터 과테말라, 서온두라스까지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의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마야문명 연대를 선사시대 (기원전 1200년 ~ 기원후 250년), 고대시대 (250 ~ 900년)과 후기고대시대 (900 ~ 1508)로 나누는데, 다른 지역의 마야 문명과 마찬가지로 시기와 환경에 따라 문명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9 ~ 10세기 즈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들이 바뀌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즈 지역의 마야문명은 1508년까지 지속되고 있었다.[11]

그러나 1508년에 스페인 탐험선이 거쳐가면서 질병을 옮겨 전 인구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1531년부터 마야인 거주지역에 군대를 보내 정복을 시작하더니 1544년에는 유카탄반도와 벨리즈까지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1544년 벨리즈 마야거주지역은 스페인에 정복되어 중앙아메리카 전역과 필리핀을 포함하는 "누에바 에스파냐 (Nueva España)"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부왕령에 속하게 되었다.[12]

1638년에 벨리즈 누에바 에스파냐에 첫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했다.[13] 이후 1640년경부터 멕시코 캄페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국의 해적들이 숨고 획득물을 정리하는 땅이었으며, 나중에는 물감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14] 애초 영국이 처음부터 영국인들이 살고 있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을 영국 식민지로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페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벨리즈 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739년 스페인이 유럽의 전쟁에서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1763년과 1783년

[11] Shoman, Assad, 29 ~ 30

[12] Shoman, Assad, 30

[13] Shoman, Assad, 32

[14] 정혜주, 269

에 조약을 맺고, 1798년 스페인이 벨리즈를 공격했지만 영국이 승리한 뒤로부터 영국은 스페인에 대해 벨리즈 지역의 주권을 요구하였다. 1802년에 체결된 아미엥 평화협정 (El Tratado de Paz de Amiens)[15]과 이후 영국의회에서도 물감나무를 자르는 권한만 가지지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나, 벨리즈에 정착하는 영국인들이 늘었다.[16]

1850년 4월 영국과 미국은 운하를 만드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벨리즈에 대한 영국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한동안 영국령 자메이카에 속했다가 1862년에 영국령 온두라스 (British Honduras)가 세워졌다. 그리고 카스타 전쟁을 통해 멕시코와 과테말라, 벨리즈의 국경이 형성되었다.[17]

20세기 들어 세계 제 2차대전을 치르고 인도 등 세계 각국에 위치해있는 영국 식민지들이 속속 독립이 되고 있었고, 벨리즈도 1961년 들어 자치령으로 변경하여 독립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후 벨리즈에서 총선이 열리고 1981년 9월에 독립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독립 과정에서 과테말라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등이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답보 상태이다.

Ⅲ 벨리즈 독립과 과테말라와의 영토분쟁

1. 벨리즈 국경형성과 영토분쟁

벨리즈와 과테말라 사이의 영토분쟁은 영국인들이 누에바 에스파냐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벨리즈 역사에서 언급했듯 15세기 중반

[15] 프랑스 혁명 전쟁 이후 프랑스와 영국 간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바타비아 공화국 (네덜란드)이 맺은 조약 (1802. 3. 27). 주요 식민지의 보유 문제에 관해 주로 다루어졌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6] 정혜주, 269 ~ 270

[17] 정혜주, 275 ~ 276

영국 해적들이 숨어들고 영국인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벨리즈 땅에 영국의 영향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821년 과테말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멕시코와 과테말라는 벨리즈에 대해 각각 스페인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았으며, 이에 대한 역사적인 증표가 있었고, 유카탄 지방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스페인 식민시대부터 각각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일부로 있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국은 과거 영국인들이 널리 정착한 것을 고려하여 두 국가의 주장을 모두 거절하였으며, 멕시코는 1826년에 영국령 온두라스를 승인하고 1893년 조약을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1850년부터 중미 다른 국가들은 먼로 독트린에 의해 미국의 영향력에 놓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이아나와 함께 먼로 독트린에 포함되지 않았고, 1859년에는 영국 – 과테말라 영토조약을 체결하여 현재와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끝까지 사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면서 영국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초기 벨리즈 – 과테말라 분쟁은 곧 영국과 과테말라 간의 분쟁이라 할 수 있었다.[18] [19]

1945년 과테말라 헌법에서는 벨리즈는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문구를 넣었고. , 3년 뒤 과테말라 정부는 벨리즈를 위협하고 그 뒤로도 계속 군사적으로 충돌하려고 하기도 하였으며, 과테말라는 벨리즈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국은 3척의 순양함을 보내고 벨리즈 – 과테말라 경계를 명확히 하려 하였다. 그러나 분쟁이 격화되어 1963년 과테말라와 영국은 국교를 단절하였다.[20] [21]

[18] 김학린 (2009), 97 ~ 98.

[19] Shoman, Assad, 150

[20] Shoman, Assad, 150

[21] Shoman, Assad, 270

[그림 3] 벨리즈 관련 국경조약 (Shoman, Assad, 35)

벨리즈의 독립운동은 195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가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던 시기였으며, 유럽 등 기타 국가들도 자국이 속한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시켜주던 시기였다. 그러나 영국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식민지 체제를 더 지속하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 UN은 식민지 국가들에게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고, 이에 영국도 1961년부터 벨리즈를 독립시키려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령 온두라스는 1964년에 자치령으로 전환하였다. UN도 벨리즈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독립 준비는 차차 진행해 나갔다.[22]

1948년에는 과테말라가 중앙아메리카 관련 회의에서 발언권을 높여나갔고, 벨리즈가 외부 세력에 의해 점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1948년과 1954년에 열린 중앙아메리카 회의에서 선언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1963년 미주기구 (OAS)는 벨리즈 독립 이후 영토문제에 대해 해결하기로 협정을 맺기로 하였으며, 1974년에는 미주사법재판소 (Comité Jurídico Interamericano, CIJ)는 벨리즈의 경우 민족 자결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이 과테말라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23]

1975년 12월 유엔 총회는 벨리즈 주민들의 독립권과 자결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멕시코가 기권하고 과테말라가 참여하지 않은 채 채택하였으며, 1976년 12월에도 모든 국가에게 벨리즈의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억제할 것을 역설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과테말라와 벨리즈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과테말라군은 병력을 벨리즈 – 과테말라 국경으로 이동하고, 영국도 카리브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양국간 교섭도 중단되는 등 영국과 과테말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교섭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과테말라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영국과 팽팽히 맞섰으며, 1975년에는 벨리즈까지 참가하는 3자회담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4년에 열린 벨리즈 총선에서 국민연합당 (PUP, People's United Party)이 승리하면서 비동맹 운동과 자메이카, 기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얻으며 국제문제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야당인 연합민주당 (Union Democracy Party, UDP)의 지원도 요청하였다. 1976년 10월에는 벨리즈 – 과테말라 단독회담이 열려 경제적 협의까지는 이르렀으나 영토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1978년과 1979년에 열린 UN총회부터는 이전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라틴아메리카 국

[22] 김학린 (2009), 99.

[23] Shoman, Assad (2009), 152 ~ 153

가들도 벨리즈 독립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하였다.[24]

1980년 1월에는 처음으로 니콜라스 리들리 (Nicholas Ridley) 장관을 통해 과테말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벨리즈 독립에 대해 군사적 보증 면에서 유리하게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5월 회담에서는 아무런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립을 위해 단독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당시 과테말라 정세는 국내 안보상황이 악화됨과 동시에 미국과 멕시코가 벨리즈 분쟁의 안정된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다. 결국 1980년 11월 유엔총회는 과테말라 등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벨리즈는 1981년 말까지 독립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영국은 1980년 12월에 벨리즈 독립을 준비하는 헌법위원회를 소집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981년 3월 런던에서 열린 3자회담의 각국 대표단은 벨리즈 독립과 해양경계 등을 담은 16개조의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협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회담이 5월과 7월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7월 회담에서 과테말라가 권리를 가지게 된 섬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후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 9월 21일에 벨리즈를 독립시킬 거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벨리즈 독립 후 무력으로 점유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협정 내용에 대해 “과테말라가 법적, 역사적으로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로 대응하였고, 결국 과테말라는 1981년 9월 7일 영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과테말라 – 벨리즈 국경을 폐쇄하였다.[25]

[24] 김학린 (2009), 100 ~ 101

[25] 김학린 (2009), 101

[그림 4] 1975 ~ 1981년 사이에 영 – 미 교섭 중 제안된

벨리즈 국경선 (Shoman, Assad, 166)

2. 벨리즈의 독립과 영토분쟁의 지속

벨리즈는 1981년 9월에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어엿한 독립국가로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먼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독립 직후인 1981년 9월 25일에 UN 가입이 승인되었고, 비동맹운동 가입을 시도하자 당시 비동맹운동의 수장이었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비동맹기구 가입을 환영하면서 다른 회원국들의 승인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미주기구 (OAS)는 분쟁국가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었다. 그러나 벨리즈는 미주기구 회의 등에 초대받아 옵서버로 초대되었다.[26]

1982년 과테말라에 리오스 몬트 장군의 쿠데타로 인한 새로운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제기되었다. 벨리즈의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영국과의 교섭 재개를 제안했고, 1983년 1월 미국 뉴욕에서 3자회담 개최를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벨리즈 국토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던 것을 톨레도 도로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예전대로 되돌아갔으며, 군사적 충돌도 벌어졌다. 1984년 총선에서 정권을 교체한 통합민주당 (UDP)은 1985년 뉴욕에서 열린 협상에서 과테말라가 영토문제에 대한 양보를 수용할 의지를 밝혔으며, 1985년 과테말라는 헌법에서 벨리즈 부분을 사실상 폐기하기도 했다. 동년 11월 선거에서 민간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여기서 당선된 비니시오 세레소 (Vinicio Cerezo)는 카리브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영토적 양보를 대가로 벨리즈를 승인할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1986년 말 벨리즈와 영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벨리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외무장관급 회담 등이 열리면서 양국 관계 회복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양국의 외무장관급 회담 등이 개최되면서 양국 문제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할 공동위원회 구성도 합의되었다.[27]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벨리즈와 과테말라 간의 영토분쟁은 계속되었고,

---

[26] 김학린 (2009), 102

[27] 김학린 (2009), 102 ~ 103.

나중에는 아마티케 만 (Bahía de Amatique) 지역의 해상경계 분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 아마티케 만 문제가 벨리즈의 영토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였고, 과테말라가 한 발 앞서 양보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가 2014년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1990년 9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아마티케 만의 영해에 대해 교섭할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자 벨리즈 정부는 12해상마일 (22.2km)의 일반 영해와 최대 200해상마일 (370.4km)의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랑구아나 암초 (Ranguana Cay)와 사스툰 강 (Río de Sarstoon) 사이에 이르는 구역을 3해상마일 (5.56km)로 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벨리즈 – 과테말라 해역의 중앙선이 아닌 3마일로 해양경계를 정하면서 과테말라는 예전에 사용하던 해로가 차단당했다.[28]

[그림 5] 아마티케 만 주변도. (구글 지도, 2014)

1991년 9월 5일 과테말라는 벨리즈를 사실상 승인하였으며, 동년 9월 11

[28] 김학린 (2009), 103

일에는 국교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하는 등 완전한 외교관계를 갖추었다. 벨리즈와 과테말라 간의 관계가 좋아지자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과테말라 내부에서는 벨리즈의 승인을 반대하는 흐름이 남아있었고, 1994년 수립된 새 정부는 벨리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다시 꺼냈다. 1998년에는 벨리즈 영토의 절반 이상을 주장하는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29]

3. 국경분쟁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벨리즈 – 과테말라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미주기구 (OAS)가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주기구가 개입하기 전에는 UN과 중미 국가들이 중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2000년 2월 과테말라군이 벨리즈 영토에 진입하고 벨리즈 방위군 4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30] 이로 인해 2000년 3월에 미주기구 (OAS)가 중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토분쟁의 해결에 물꼬가 텄다. 2000년 11월 8일에는 벨리즈 – 과테말라간 상호신뢰구축조치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31]가 이루어졌으며, 현 국경선으로부터 동서쪽으로 약 1km 정도의 “인접 라인 (Adjacency Line)”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휴전선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다.[32]

그러나 벨리즈 정부가 벨리즈에 불법으로 이주한 과테말라인들을 퇴거시키고 2001년 초 벨리즈 인근에서 과테말라 벌목 노동자들과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는데, 시종일관 조정위원회 틀에서만 이루어지다보니 원

---

[29] 김학린 (2009), 103 ~ 104.

[30] 김학린 (2009), 104.

[31] 양국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하며, 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32] OAS.

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33]

2003년 7월 벨리즈와 과테말라 외무부는 체제전환과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두 번째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2005년에는 벨리즈 – 과테말라 상호신뢰구축과 협상을 위한 기본협정 (Agreement on a Framework for Negotiations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between Belize and Guatemala)을 통해 수정되었다. 이 시기에 국경지역에 미주기구 사무소도 만들어 분쟁해결을 위한 활동 등을 하였다.[34]

2006년 2월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벨리즈 남부에 있는 해양국경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온두라스가 초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해를 위한 협상이 진전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조정에 실패하였다. 결국 2008년 12월 8일 해양경계 조정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로 넘기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35]

2012년 4월 27일 벨리즈와 과테말라 외무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주기구에서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투표는 2013년 10월 6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다.[36]

2014년 1월 24일 벨리즈, 과테말라 외무부 장관과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로드맵과 행동의 계획 (Road Map and Plan of Action)”에 서명하여 쌍방 관계를 보강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2월에 첫 회담이 열려 공교육에서의 인정, 도난차량 회수의 간편화, 범죄예방, 임시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합의하여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접 라인 (Adjacency Line)” 지역을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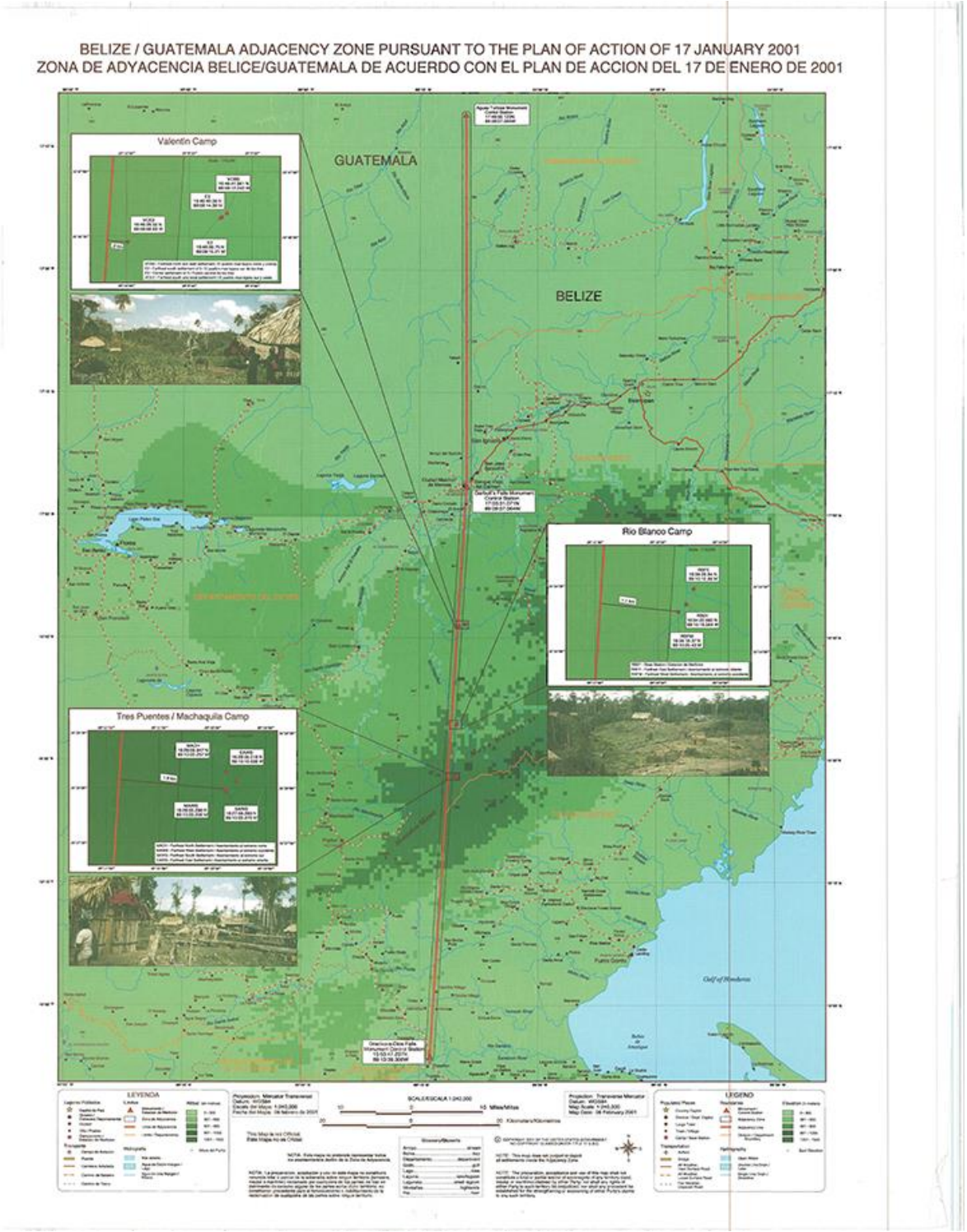
[33] 김학린 (2009), 104 ~ 105.

[34] OAS.

[35] OAS.

[36] OAS.

으로 만들어 환경보전에도 앞장서기로 하였다.[37]



[그림 6] 벨리즈 – 과테말라 국경선 사이의 "인접 라인 (Adjacency Line)". (OAS, 2002)

[37] OAS.

미국은 벨리즈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였는데, 중남미 다른 국가에게 하던 전통적 방식인 마약과 테러방지 등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벨리즈는 떠오르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38]

유럽연합과의 협력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국가그룹 (el Grupo de Países de África, la Cuenca del Caribe y el Océano Pacífico, ACCOP) 산하에 있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설탕가격의 하락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국가그룹의 바나나 사전보증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EU와의 회담에서 벨리즈는 시장에서의 우선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39]

벨리즈는 카리브공동체 (la Comunidad del Caribe, CARICOM)에 가입하여 카리브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 중앙아메리카통합체제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에 가입함으로써 정치적 협력관계도 강화하고 있다.[40]

Ⅳ 독립 이후의 벨리즈 정치・경제

1. 과테말라와 멕시코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벨리즈 – 과테말라 국경문제를 다루면서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 과테말라와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상술하였듯 스페인 식민시기 때에는 누에바 에스파냐 (Nueva España)의 일부였다가 영국인들이 들어오고 난 후 국가가 갈라졌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

[38] Antonio Antonio, Verónica (2012), 35.

[39] Antonio Antonio, Verónica (2012), 35.

[40] Antonio Antonio, Verónica (2012), 35.

여기서는 정치적 관계를 먼저 분석한 뒤 벨리즈 – 과테말라, 벨리즈 – 멕시코간 경제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1) 정치적 관계

벨리즈와 과테말라, 멕시코 관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주변국간 갈등의 역사로 도배되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복잡하며, 세 국가가 원하는 것들도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벨리즈의 경우 멕시코는 과테말라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체투말 인근에 있는 온도 강 (Río Hondo)부터 벨리즈시티 근처에 있는 시분 강 (Río Sibún)까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가 권리를 포기하고 벨리즈 독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독립 후 벨리즈를 승인하게 되었으나, 과테말라는 1981년 벨리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41]

또한 멕시코가 벨리즈의 독립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멕시코와 과테말라 간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졌다. 1977년 6월 9일 과테말라는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겼으며, 멕시코 정부도 과테말라 지역의 일부가 멕시코 영토라고 주장하며 과테말라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긴장은 “멕시칸 확장주의 목표”와 관련된 과테말라 세력의 오래된 불신에서 비롯되었으며, 과테말라 신문인 라 나시온 (La Nación)은 1980년 2월에 “멕시칸들의 중미로의 세력침투에 대한 메카시즘”이라고 비판하였다.[42]

결국 1979년에는 과테말라만이 벨리즈의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과테말라 정부는 마지막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1981년 3월 11일 영국이 벨리즈 독립을 지지했을 때, “이해의 기본”이라 불리는 벨리즈 독립에 관한 안건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독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관계 악화는 계속되었다가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졌고, 1986년에는 과테말라와 통상관계를 다시 시작하였다.[43]

---

[41]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76.

[42]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81 ~ 82.

[43]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82 ~ 84.

1.2) 경제적 관계

벨리즈 경제는 “유동성이 심하고” “취약하다”는 말이 대명사일 정도로 불안정한 편이다. 1981년에 독립한 신생국가이니 국내기반이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고, 수출입 상황 및 국제 정세에 따라 경제 사정이 변해왔으며, 관광으로 먹고 사는 현재도 관광 이외 분야에서는 산업 기반이 약하니 이러한 현상이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관광업의 경우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미국 계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국제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다.[44]

1985년부터 벨리즈 경제는 1차 고성장기 (1986 ~ 1992년)와 1차 저성장기 (1993 ~ 1997), 1998년부터 2차 고성장기 (1998 ~ 2005) 양상을 보였는데, 세계은행 (IMF)에 의하면 벨리즈는 중미 국가들 중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독립 직후 1차 고성장기에는 5.6%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이며, 이는 웬만한 중미 국가들의 그것보다 더 높았다.[45]

농업 분야에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을 중심으로 연 7%의 성장을 보였으며, 파파야 재배와 새우 양식 등의 산업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사탕수수와 바나나 등은 미국/유럽행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았다. 건설업은 연평균 17% 정도 성장하였으며, 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호텔 등 숙박업소와 리조트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역외 금융도 이 시기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46]

1990년대 초반에는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되는 시기에 있었으며, 이 여파로 인해 벨리즈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아이템이 1차 산물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경공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는데, 주로 의류산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퇴하는 성장률에 의해 자국 산업이 약간 침체되는 시기를 겪었는데, 1990년대 초반 멕시코 페소화 평가절

44 Shoman, Assad (2009), 208.

45 Shoman, Assad (2009), 208.

46 Shoman, Assad (2009), 208 ~ 209.

하로 인해서이다. 또한 1994년 캐나다 – 미국 – 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는 의류봉제업이 50%나 떨어졌다. 1996년에는 15%의 부가가치세 (VAT)가 도입되었다.[47]

그러나 국민연합당 (PUP)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1998년부터 제 2차 고성장시기가 시작되었는데, 1998년 벨리즈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세금과 고실업률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1996년부터 부과해오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였으며, 사회안전망도 확대하였다. 이에 벨리즈의 경제성장률은 연 6%로 다시 성장하였으며, 경제부처는 이를 "성장하는 경제"라고 명명하였다.[48]

벨리즈와 멕시코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수입한 물건을 재수출하는 중개무역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1970년과 1988년 사이 대멕시코 재수출은 17% 올랐으며, 전체 수출량의 24.5%를 차지하였다. [49]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멕시코 경제위기로 인해 벨리즈 경제에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 1983년 벨리즈의 재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50%나 감소하였다. 벨리즈의 멕시코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1%를 차지하였는데,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멕시코와 벨리즈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멕시코 상품들의 벨리즈에서의 입지가 더욱 확대되었다. 멕시코 상품의 기술력이 벨리즈의 그것에 비해 더 좋기 때문이며, 멕시코에서는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벨리즈 입장에서 멕시코는 큰 시장이었다. [50]

벨리즈와 과테말라 사이의 경제관계는 멕시코와의 경제적관계 만큼이나 중요하다. 과테말라와 영토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멕시코의 경우와 사정이 달라

---

[47] Shoman, Assad (2009), 209 ~ 211.

[48] Shoman, Assad (2009), 211 ~ 212.

[49]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55 ~ 160.

[50]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55 ~ 160.

서 국경 상황에 따라서 교역 여부가 판가름났기 때문이다.[51]

독립 초기에는 벨리즈의 대과테말라 무역에 있어 적자를 보았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의 교역량을 보면 대과테말라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으며, 수출의 경우 벨리즈에서 수출하는 전체 물량의 1%를, 수입의 경우 대벨리즈 전체 수입량의 1.8%를 차지하였다.[52]

과테말라계 난민들이 벨리즈로 들어오면서 바나나와 사탕수수 등의 산업을 벨리즈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벨리즈에서는 소규모의 벨리즈 여행객들이 티칼(Tikal) 등 과테말라에 있는 마야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과테말라시티 (Ciudad de Guatemala)로 가는 경우가 간간히 일어난다. 1987년에는 과테말라 상공인 단체가 벨리즈에 투자하기 위해 관청에 등록하기도 하였다.[53]

이외 사항들은 벨리즈 – 멕시코 관계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과테말라 상품을 벨리즈 시장으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나, 영토분쟁이 경제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54]

2. 이민과 국경지역의 경제상황

2.1) 이민현황 및 상황

중미계의 벨리즈 이민은 벨리즈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벨리즈의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스페인어 사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우선 중미 각 국가에서 나온 망명자들이 존재하나, 통계 발표자에 따라 상이한 수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사정에 의해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 1987년 벨리즈이민위원회 의장을 맡은 요셉 팔라시오 (Joseph Palacio)의 연구에

---

[51]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55 ~ 160.

[52]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61.

[53]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61 ~ 162.

[54]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62.

의하면, 1988년 8월까지 4,863명의 난민들이 벨리즈에 등록되었으며, 이 중 3,556명 (73.1%)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출신이다. 과테말라의 중미 난민 관련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 바이런 포스터 (Byron Foster)는 1988년 12월 기준 4,302명의 난민이 벨리즈에 등록되어 있으며, 70% 이상이 엘살바도르 출신, 30% 정도만이 과테말라 출신이라고 하였다. 사무엘 라부른 (Samuel Rhaburn) 장관은 "정부는 대략 6,000개 유형의 난민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권 관련 사항이었다."고 말했으며, 국제 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Alto Comisariado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os Refugiados, ACNUR)는 총 9,000명의 난민이 벨리즈에 있으며, 3,000명은 엘살바도르 출신, 6,000명은 과테말라 출신이다.[55]

1985년 5월 마누엘 에스키벨 (Manuel Esquivel) 벨리즈 총리는 벨리즈에 47,000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벨리즈 정부는 이 수치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25,000명 수준으로 고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치는 과테말라의 사무엘 라부른도 사용하고 있다), 이 25,000명이라는 숫자가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나온 숫자라고 밝혔다. 이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25,000명이 벨리즈로 넘어온 것이라고 밝혔다.[56]

라부른 장관은 인터뷰에서 5,000명의 중앙아메리카인들이 매년 벨리즈로 넘어가고 있으며, 1984년부터 1988년까지 20,000명이 벨리즈로 넘어온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벨리즈 외교부는 매주 600 ~ 천명 정도의 난민들이 수년동안 벨리즈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밝혔다.[57]

비록 정확한 통계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이들 난민들의 특징을 보면

-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들이며, 당시 과테말라 내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떠나 벨리즈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 대부분 난민들은 과테말라 농촌지역에서 떠나왔으며, 이 중 75%는 벨

[55]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5.

[56]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6.

[57]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6.

리즈의 농촌지역에 재정착하였다.

- 이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으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 대부분의 난민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어린이들을 제외한 난민들의 평균 연령은 30세이다.
-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가족 단위로 피난을 온 경우가 많다. 이들은 벨리즈에 정착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벨리즈에서 계속 영주하려고 한다.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난민들 중 대부분은 과테말라에서 벨리즈로 연결되는 알타 베라 파스 주 (Alta Vera Paz), 이사발 주 (Izabal), 페텐 주 (Petén) 등지에서 넘어갔으며, 벨리즈로 넘어간 이들은 카요 (Cayo) 도에 정착하여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는 2장 벨리즈 지리에서 서술했듯 과테말라와 국경이 접해있고 스페인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주이다. 아무리 중미에서 벨리즈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벨리즈 남부에 있는 톨레도 도 (Toledo)에는 켁치 (Q'eqchi')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벨리즈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58]

에레라 소토 (Herrera-Soto)에 의하면 “엘살바도르 출신 난민들 대부분은 엘살바도르 북부지방에서 출발하며, 이들은 대부분 벨리즈 중북부 지방에 정착하며, 일부는 직장 문제로 인해 남부지방으로 가기도 한다. 이들은 땅을 빌려 공장을 짓고 작은 쇼핑센터를 열고 농업을 육성하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59]

온두라스 출신 난민들의 경우에도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이들 또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벨리즈에서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 관련 일자리의 경우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온두라스 출신 난민들이다.[60]

---

[58]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7.

[59]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8.

[60]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8 ~ 109.

2.2) 국경지역의 경제상황

벨리즈 – 멕시코 국경은 체투말 (Chetumal) – 산타엘레나 (Santa Elena)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벨리즈 – 과테말라 국경은 멜초르 데 멘코스 (Melchor de Mencos) – 벤케 비에호 델 카르멘 (Benque Viejo Del Carmen)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루트가 벨리즈를 육로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남쪽으로 사스툰 테마쉬 국립공원 (Sarstoon Temash National Park)이 과테말라의 이사발 주 (Izabal)와 맞대고 있지만 배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다.

벨리즈 – 멕시코 관계는 상술하였듯 덜 복잡하였다. 따라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국경 관리도 필수인력에 의한 필수적인 관리 외에는 유연하게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벨리즈 코로잘 – 멕시코 체투말 지역에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된 코로잘 도에는 사탕수수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게 되었고, 심지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벨리즈 당국을 대책을 세우게 되고 결국 자유무역지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후 캐나다 – 미국 – 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 체결되면서 북미 시장으로 향하는 가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61]

[61] Corozal Free Zone.

[그림 7] 멕시코 – 벨리즈 국경.

과테말라 지역의 경우 영토분쟁을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멕시코 지역보다는 발전이 더디다. 국경을 폐쇄해버린 역사도 있는데다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하였기 때문에 벤케 비에호 델 카르멘 (Benque Viejo Del Carmen) 지역에 도시가 형성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4.3) 문제점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상황이 모두 좋지 않을 때 중미 3개국에서 벨리즈로 난민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벨리즈 국내 문제가 상당했다. 1987년까지 언급된 문제점들은

- 토지 문제 : 수많은 난민들이 아무런 허가 없이 토지를 점유하며, 농업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야기하기도 한다.
- 노동 문제 : 농공 관련 산업들이 난민들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이다. 또한 월급이 적고 경제적 기반이 약하며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다. 이는 농공 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범죄 : 난민들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나, 벨리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마약범죄나 폭력사건 등이 피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질병 : 말라리아, 위장염, 이질 등의 전염병들이 난민 사이에서 창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 사회보장서비스의 압박 : 난민들에게 보건과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생긴다. 벨리즈 수도인 벨모판(Belmopan)에 있는 병원을 예로 들면 주요 이용객들은 이민자들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늘어나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등이 있다.[62] [63]

Ⅴ 마치며

벨리즈와 과테말라가 겪고 있는 영토분쟁은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벨리즈 전지역과, 과테말라, 멕시코 일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도 작용한다. 신생국가의 특성상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34년 동안 역사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발전이 느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영토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미 각국에서 몰려오는 난민들도 벨리즈 – 과테말라 영토문제와 더불어 중미 각국의 내부문제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영토분쟁으로 인해 국가 외교력을 영토분쟁 해결 위주로 써야 하며, 거기에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의 인근 중미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니 영토분쟁 외에는 그나마 안정적인 벨리즈로 난민들이 몰려오는 것이고, 이들 중 과테말

[62]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109 ~ 110.

[63] Antonio Antonio, Verónica (2012), 48 ~ 49.

라계 난민들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토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영국 식민지 초기에 분쟁을 겪었다가 자연히 물러난 멕시코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유무역지대까지 만들어지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 교류도 있었지만, 과테말라와는 그런 관계가 미미하다는 점 또한 영토분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벨리즈 – 과테말라 영토분쟁 역사를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스페인 식민 하 누에바 에스파냐에 속했다는 역사적 이유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주민들, 특히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반 이상이 공용어인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메스티소가 많다는 이유로 역사적, 사회적 문제를 들긴 하지만 최근 들어 벨리즈의 주권을 인정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요구범위도 톨레도 도 등 남부지역에 국한되고 이쪽에서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 이유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남부지역의 경우 아마티케 만을 통해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과테말라가 이 지역을 거머쥐게 되면 대서양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동부지역으로 손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 태평양에 있는 항구에서 출발하여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벨리즈의 역사는 “만들어진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만들어진 역사라는 말이 신생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영토문제가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우선 영국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주변 국가들이 안정되어 벨리즈의 발전을 꾀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인터넷 자료

CIA. http://www.cia.gov

Corozal Free Zone. History. http://www.belizecorozalfreezone.com (2014년 11월 23일 확인)

NPR (2006). Large Oil Field Is Found in Belize; the Angling Begins. http://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6248500 (작성일 : 2006년 10월 11일, 검색일 : 2014년 11월 10일)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http://www.oas.org/sap/peacefund/belizeandguatemala

2. 사진자료 및 도표

CIA. http://www.cia.gov

Google Maps. http://maps.google.com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http://www.oas.org/sap/peacefund/belizeandguatemala

Shoman, Assad (2009), *Historia de Belice: el surgimiento de una nación centroamericana / Assad Shoman; traducción de Orisel Sierra Santiesteban*, México D. F.: UNAM,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95p.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3. 단행본 및 논문

김학린 (2009).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임상래 (2003), 라틴아메리카 국경문제에 관한 소고, 『이베로아메리카』Vol. 5, pp. 177 ~ 200.

정혜주 (2011), 까스따 전쟁 사이에 이루어진 국경: 꾸르스옵이 국경형성에 미친 영향, 『이베로아메리카』Vol. 13, No. 1, pp. 255~286.

Antonio Antonio, Verónica (2012), Relación Belice-México: ¿Indiferencia u Oportunidades? UNAM-FES Aragón

Gargallo, Francesca y Santana, Adalberto (1993), *Belice; Sus Fronteras y Destino*, México D. F.: UNAM. 233p.

Ruíz Chan, Maximiliano (1998). *Los Retos y Perspectivas de las Relaciones Comerciales entre Belize y México entre 1990 a 1994.* UNAM-FES Aragón.

Shoman, Assad (2009), *Historia de Belice: el surgimiento de una nación centroamericana / Assad Shoman; traducción de Orisel Sierra Santiesteban*, México D. F.: UNAM,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95p.

Statistical Institute of Belize (2013). *Beliz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0.* Belmopan. Pp. 158.